

화학물질,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안전하다

고광재 ·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장

나는 매일 믹스커피를 마신다. 커피가 몸에 좋고 나뭇을 떠나 내게 있어 커피는 참기 어려운 필수 기호품이다. 믹스커피는 구수한 맛이 일품이지만 산행이나 업무중에 잠시 쉬며 봉지로 저어 마시는 편리함이 으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믹스커피를 봉지로 저어 마시는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화학물질이 코팅된 봉지의 찢어진 단면으로 뜨거운 물과 커피를 저으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매일 만난다. 손을 씻거나 빨래를 할 때도, 코로나방역 소독을 할 때도 사용된다. 어린이들의 장난감에도 컴퓨터, 자동차 등 생활속에서 이용하는 모든 곳에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함유량과 노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다. 2011년 발생한 가슴기 살균제사고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잘 보여줬다.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살균제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도 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며칠 뒤에는 김해의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장에서 세척작업을 하던 근로자 13명이 중독되어 같은 판정을 받았다. 3월 중순에는 인천의 전자부품 도장공장에서 관리대상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의 찌꺼기를 청소하던 50대 근로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평소 함께 일하던 동료작업자가 코로나에 걸려 혼자서 일을 하다 사고가 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러한 화학물질은 산업현장에서 세척제로 많이 사용되는데 보호조치 없이 인체에 다량 노출되면 중추신경·간·폐 등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은 위험정보를 제대로 알고, 취급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급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과 배치 후에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반기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개선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독마스크와 보호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취급 물질의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것도 챙겨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연이어 발생하는 화학물질 급성중독사고와 관련하여 세척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4월까지 사업장 스스로 해당 작업공정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5월부터 집중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환기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사업장 당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한다.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비용과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저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문화답사는 아는 만큼 깊이 볼 수 있고, 경험과 지식이 축적될수록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은 유용성만큼이나 위험성도 크다. 수많은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일터에서 나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길은 ‘내가 일하는 곳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끝).